

착각

나 여 경
소설가

요강 밥의 효과가 떨어진 걸까?

또 그놈의 도화살이 도진 건가? 흔히 끼 많은 여자에게 도화살이 끼었다느니, 도화살을 타고났다는니 하지만 수진은 남편 k가 도화살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더해 역마살까지 있으니 늘 가슴에 뜨거운 돌멩이 하나 걸린 듯 답답했다.

요강 밥은 그런 수진의 숨통을 풀어주는 한 가닥 빛이었다. 그날은 수진의 생일이었다. k가 예약해 놓은 식사 자리는 꽤 근사했다. 생일선물로 목걸이까지 받은 수진의 마음이 풍선처럼 등실 떠올라 있을 즈음 주홍빛 탁자 보 위에 놓인 k의 핸드폰이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다. k는 잠시 화

장실을 가고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지진이라도 일으킬 듯 몸을 떨어대는 핸드폰을 손 뺀어 가져오는 순간 급하게 k가 핸드폰을 뺏어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언뜻 본 핸드폰 화면에는 거래처 박 대표라고 찍혀 있었지만, 수진의 신경은 사방으로 분주하게 뻗어가고 있었다.

나쁜 예감은 항상 어긋나지 않는다. k는 여자들의 이름을 거래처 박 대표, 거래처 이 대표, 거래처 황 대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버릇이 있었다. 의심은 굳이 거래처라고 밝힌 점에서 비롯됐다. 다른 거래처는 없거나 바뀐 번호였는데 ‘거래처 박 대표’가 목하 열애 중인 여자였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수진이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다. 바람기 없애는 방도라는 기막힌 사연이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한 그 방도가 좀 꺼림칙했다.

요강에 밥을 해서 남자에게 주면 바람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횡수도 기가 막혔다. 총 일곱 번을 먹어야 했다.

요강을 구하는 일부터 어려웠다. 사기요강은 안 되고 불 위에 올릴 수 있는 스테인리스 요강이라야 가능했다. 어렵게 어렵게 꽤 많은 돈을 주고 드디어 요강을 구했다. 90세 자기 시어머니가 시집오면서부터 썼던 것이라며 어떤 여자가 건네준 요강은 정말 사용 기간이 상당해 보였다. 귀한 골동품(?)을 얻은 수진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만족스러웠다.

그날 밤 요강에 정성스럽게 밥을 했다. 처음 사용해 보는 용기에 일 인분의 밥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행히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됐다. 그런데 어쩐지 맨밥을 담아 내놓기가 미안했다. 오랜 고민 끝에 비빔밥을 생각해 냈다. 고추장과 나물을 잔뜩 넣어 비벼주기까지 하자 k는 연신 병글거리며 요강 밥을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왜 안 먹어?”라고 말하며 몇 차례 요강 밥을 권하는 k를 외면한 채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수진의 마음이 웬지 초조하고 들떠있었다. 남은 밥알을 숟가락으로 살뜰하게 모아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는 수진을 바라보며 영문을 모르는 k는 싱글벙글했다.

수진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요강 밥 먹

이기'는 한 달에 걸쳐 완성되었다. 신기하게 그 후 k의 바람기가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그런데 요즘 k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안 풀리는 사업 때문에 술자리가 많아졌다고는 했지만 그건 변명 같았다. 취해 들어와 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말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처음엔 잠꼬대려니 하고 넘겼는데 여자 이름 같은 단어가 부쩍 자주 등장하다 보니 마음에 걸렸다.

뜨거운 자갈이 식도에 걸린 듯 속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강 밥의 효능이 떨어진 걸까. 그럴 만도 하지, 요즘 1년도 안 돼 집 한 채가 똑딱 만들어지고, 이삼 년이면 도로도 생기는 세상인데 10년이면 약효가 떨어질 법도 하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던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며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거기 같은 일이!! 또 요강 밥을 해야 한단 말이야??? ”

일이 터진 건 그날 밤이었다.

역시 술에 한껏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온 k는 수진을 보자 과장되게 손을 내젓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힘들다, 힘들어, 라고 말했다.

어떤 년이랑 연애질하길래 그렇게 힘이 드냐, 라는 생각에 수진은 부축하던 k를 침대에 내팽개쳤다.

그 바람에 k의 외투에 있던 핸드폰이 침대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수진은 얼른 그의 핸드폰을 주워 들고 옷방으로 들어갔다.

핸드폰 통화기록을 검색하던 수진의 얼굴색이 변하고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해경!”

여자의 이름은 해경이었다. 거래처 박 대표로 숨기는 매너(?)까지 상실한 k의 소행이 꽤 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핸드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꺾꺾 누르고 수진은 애써 침착하기 위해 숨을 가다듬었다.

뛰던 가슴이 잠시 안정을 되찾자 수진은 거침없이 해경의 번호를 눌렀다.

기대하던 여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보세요, 어찌고저 찌고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흥분한 수진에게 남자가 하는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를 해경의 남편이라고 생각한 수진은 다짜고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당신 부인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아, 여보세요! 전화....”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수진은 기회를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속 편하게 여보세요, 찾을 때가 아니

라고요, 당신 부인하고 제 남편이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아니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걱정인가요?”

“아주머니 어디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여긴 해양경찰입니다.”

건설골재업에 종사하는 k는 직업상 해양경찰과도 친분이 깊었는데 해경이 해양경찰의 줄임말일 줄이야...

수진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미안합니다!”를 연발하며 전화를 끊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요강 밥의 효과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인문세상**